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유관기관과 영농도우미 활동

- 신안 고추 농가서 일손 지원 구슬땀 농협과 합동, 터널 고추심기 돕기 범필재 “사회적 책임 다할 것”

2025.04.14 17:20 입력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신안군 농가의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영농도우미 활동을 펼쳤다. 농번기 고추심기와 비닐씌우기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다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범필재)는 지난 11일 신안군 압해읍의 터널 고추 재배 농가에서 ‘KRC 영농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협상생발전협의회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공사 및 목포·신안 지역 농협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KRC 영농도우미 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터널 고추심기와 비닐씌우기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지원은 농가의 작업 부담을 덜고 영농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범필재 지사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역 유관기관과

의 협력을 통해 농촌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농촌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농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